

# 민주 '다당제·통합정부 카드' 막판 승부수 통할까

### 송영길 4년 중임제 개헌 등 제안 안철수 "들은바 없다" 시큰둥 국힘 "교육지책 정치 개악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 개혁과 국민통합으로 승부수를 던졌지만 정작 야권은 이 같은 제안에 "연대, 단일화 연결 짓는 것은 무리"라며 선을 그었다. 24일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은 다당제 연합정치 구현과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헌법 개정 등 정치 개혁 의제를 꺼내 들며 이른바 '제3지대' 규합에 나섰다. 이 제안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비롯해 정의당 심상정·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 등과 정치 개혁을 고리로 한 가치 연대를 결성,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고립시킬 포위망을 구성함으로써 막판 박빙·접전 국면을 깨고 우세를 차지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또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민통합 개헌으로 권력 구조를 민주화하겠다"며 "국민통합 국회"를 위해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대통령 4년 중임제·대선 결선투표제 등 개헌을 포함하는 선거제도 개혁 등을 제안했다. 실질적인 다당제 구현으로 연합 정치를 보장, 여야 양당을 제외한 3, 4당도 공존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사실상 안 후보에 보내는 공개 구애 카드로, 선거 연대 및 후보 단일화까지 염두에 둔 포석으로 해석된다. 송 대표도 "안 후보께서 다당제를 강조하셨다. 실질적인 다당제 구현으로 연합 정치를 보장, 여야 양당을 제외한 3, 4당도 공존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사실상 안 후보에 보내는 공개 구애 카드로, 선거 연대 및 후보 단일화까지 염두에 둔 포석으로 해석된다. 송 대표도 "안 후보께서 다당제를 강조하셨다. 실질적인 다당제 구현으로 연합 정치를 보장, 여야 양당을 제외한 3, 4당도 공존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안 후보 측은 민주당 측 제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진정성에 물음표를 달고 선거 연대나 후보 단일화 가능성엔 더더욱 선을 긋는 분위기다. 안 후보는 오전 선대위 회의 후 민주당의 정치개혁안 발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 질문에 "저는 들은 바 없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민주당이 선거제 개혁 추진을 발표하면서 안 후보가 평소 말하던 다당제 등과 생각이 일맥상통한다고 밝혔다"고 질문에 "그렇게 소신이 있으면 그렇게 실행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이태규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은 라디오에서 "보편적으로 한국 정치가 바뀌기 위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그것을 연대와 단일화하고 연결 짓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또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그동안 계속 얘기했지만 뒤집었던 게 문제"라면서 "선거와 연동해서 하지 말고 진정성 있게 이행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는 이날 SNS에서 "대선을 목전에 두고 이런 내용을 발표하는 것은 표를 얻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양치기 소년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진정성 있는 실천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측의 정치 개혁 제안에 '선거용'이라고 폄하했다. 황규환 선대본부 대변인은 논평에서 송 대표의 이번 정치 개혁안에 대해 "진정성 없는 '정치개악 쇼'이고 선거를 2주 앞둔 교육지책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다.

황 대변인은 "짜늘한 민심에 아무리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겠지만, 적어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엄중한 정치개혁을 이야기할 때에는 진정성을 가지고 얘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전북 군산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열린 군산조선소 재가동 협약식에서 협약식을 마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병천 현대중공업 노조지부장, 강인준 군산시장, 문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 대통령,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 문 대통령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선정, 바이오 선도국 현실화"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세계보건기구(WHO)가 한국을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선정한 것을 두고 "백신 허브 국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기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우리나라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역량과 교육 인프라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등 여러 국가·기구와 백신 협력을 강화하며 세계

보건위가 극복에 주도적으로 기여하는 데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라고도 했다.

아울러 "이제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백신 역량 증대를 위한 교육 훈련과 전문인력 양성의 허브 국가가 됐다"며 "우리 경험과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고, 백신 자급화와 백신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적었다.

문 대통령은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기회"라면서 "우리 정부가 목표로 세운 세계 5대 백신 강국, 바이

오 선도국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는 중·저소득국의 백신 자급화를 위해 백신과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정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는 중심 기관을 의미한다. WHO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국가 간 백신 불평등 문제가 심화하자 백신 자급이 어려운 중·저소득국의 바이오 역량을 키우기 위해 'WHO 인력양성 허브'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이재명 "3·4당 존재해야 정치교체...尹빠고 정치개혁 합의하자"

### 중도 지지층 흡수 전략 가속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4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제외하고 진짜 국민의 삶을 개선하자는 모든 정치세력이 가능한 범위에서 협력하는 길을 찾자"고 제안하는 등 폭넓은 행보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녁'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이 단계에서 정치개혁이라는 공통 공약 합의라도 하면 좋겠다. 협력 가능한 모두에게 드리는 말씀"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 대해 "두 분 말씀과 정치교체, 연합정부의 필요성에 거의 다른 점이 없다"고 했다.

반면, 윤 후보에 대해서는 "유세나 말씀, 행동을 보면 무서운 정도로 구태스럽고 이분법적이고 난폭하고 일관성도 없다"며 "이런 분과 같이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전날 '분열의 정치를 하지 않는 모든 정치세력'을

언급한 데 이어 정치개혁·통합정부를 고리로 한 제3지대와의 연대를 더욱 구체화함으로써 중도 지지층 흡수 전략을 가속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통합정부론의 취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독식 정치를 하니 40%를 득표해도 (권한을) 100% 행사하는 것이 갈등의 원인"이라며 "협력 가능한 분들이 역할을 나눠 함께 국가를 위해 일하는 연합정부를 꼭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을 깨고 제3당, 제4당이 선택 가능하게 존재해야 진짜 정치교체"라며 "정치를 통째로 바꿔 '잘하기 경쟁'을 하는 게 꿈이었는데, 이번엔 기회가 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느 쪽도 혼자 이기기 어려운 이런 상황을 대한민국 정치교체 기회로 만들자"며 "무능·무책임하고 무지하고 평화와 경제를 위협하는 더 나쁜 정권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정치교체로 새 세상을 만들 결정적 기회"라고 강조했다.

정치개혁의 구체적 방안으로는 기초의원 2인 선

거구 제한과 결선투표제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안 후보와 (단일화) 결렬을 놓고는 책임 공방이 국민과 무관계가 있느냐. 그것을 안하게 하는 유효한 방법이 결선투표"라며 "1·2위가 50%를 못 넘기면 국민들이 정리하는 것이다. 지금은 정치인끼리 답답하게 만들지 않느냐"고 했다.

이어 "민주당 주류 입장에서 지금 체제가 편한 측면도 있어서 안 하고 싶은 것"이라며 "안 후보와 심 후보가 주장했고, 승리를 위해 다른 진영의 요구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할 상황이 된 것이 오히려 기회"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는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안했던 '대연정'과 관련한 질문에는 "굳이 소수 정파만 모을 필요 있느냐. 국가를 위해 역할을 나누는 것이 합의되면 소연정·대연정 모두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라고 해석하며 "이론적으로 맞는데 당시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 같다"고 언급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대선 여론조사 브리핑

## 이재명 40.5%·윤석열 41.9%... 격차 줄어

리얼미터 조사...안 6.8%·심 2.6%  
4개 기관 조사...이 37%·윤 39%

대선 가상 다자대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잇따라 나왔다. 직전 조사들과 비교해 두 후보간 격차가 줄어들면서 초반빙 현상을 보였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0~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20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후보는 40.5%, 윤 후보는 41.9%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다. 윤 후보는 1주일 전보다 1% 포인트 하락했고, 이 후보는 1.8% 포인트 올랐다. 두 후보의 격차는 4.2% 포인트에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2.2%p) 내인 1.4% 포

인트로 좁혀졌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1.5% 포인트 내린 6.8%,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0.6% 포인트 하락한 2.6%를 각각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임의결기(RDD)로 무선(95%)·유선(5%) 표본을 추출해 전화면접(40%)과 자동응답(60%) 방식으로 시행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1~23일 전국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4차 가상대결에서는 이 후보가 37%, 윤 후보가 39%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전화 면접 방식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응답률은 25.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http://www.greenfuneral.kr/

### 光州시민의 장례식장은, 그린장례문화원!

보내는 이의 효심과 그리움으로 다시찾는, 장의 名家  
광주시청에서 10분, 용전사거리에 있습니다.

그린장례문화원

사전상담하시면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린장례식장 임소문 6선!

1. 호남·88·남해IC 진출구 전국 어디든 사통팔달
2. 동시 주차 1천대 분관 일체형 주차타워
3. 동시 접대 350명 장공 등VIP객실 13개소 완비
4. 가격은 저렴하고 품격은 최고의 고감도 의전서비스
5. 세계김치문화축제 대통령상 수상 음식 맛 최고
6. 창업주 아너소사이터 정희원 국민나눔대상 수상

상담문의 250-4455  
광주광역시 하서로 663길 97(용전동 1213-17)

## 모던 슬라브목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목상) 시공

###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